

연중 제 27 주일 화답송 [다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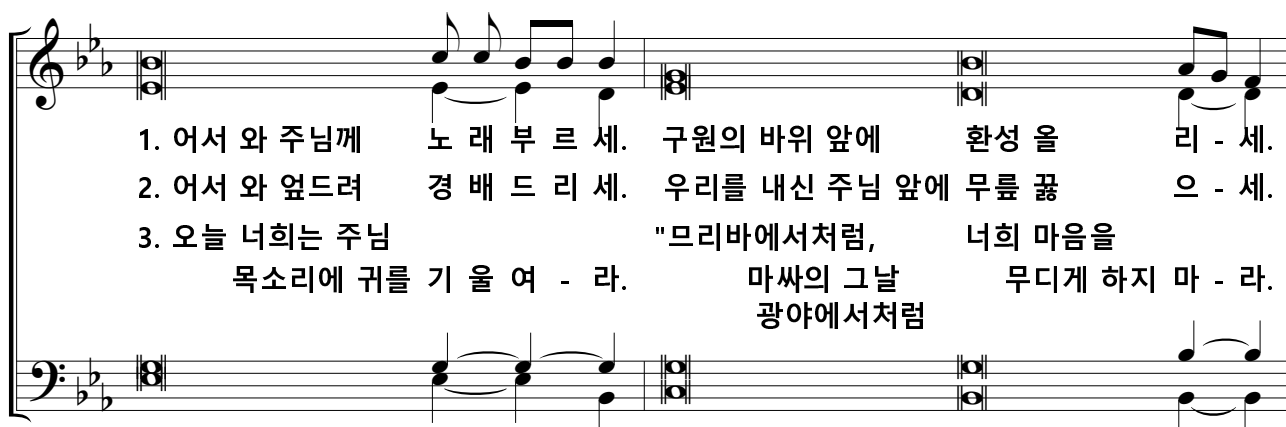
시편 95(94), 1-2. 6-7. 7-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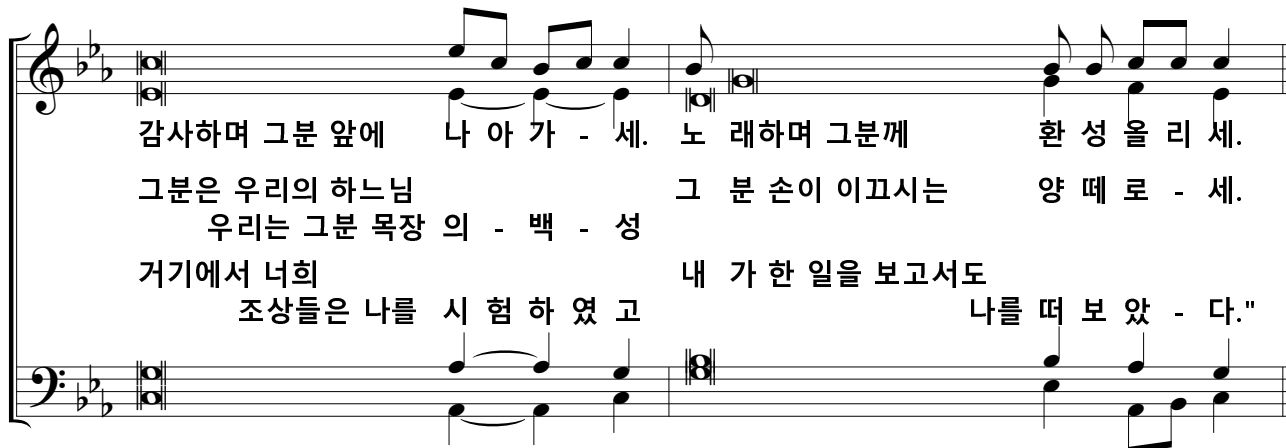
(후렴) 오 늘 주 님 목 소 리 에 귀 를 기 울 여 - 라.



너 희 마 음 을 무 디 게 - 하 지 마 라.



1. 어서 와 주님께 노 래 부 르 세.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을 리 - 세.
 2. 어서 와 엮드려 경 배 드 리 세.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 으 - 세.
 3. 오늘 너희는 주님 "므리바에서처럼, 너희 마음을
 목소리에 귀를 기 울 여 - 라. 마싸의 그날 무디게 하지 마 - 라.
 광야에서처럼



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 아 가 - 세. 노 래하며 그분께 환 성 을 리 세.
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그 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 로 - 세.
 우리는 그분 목장 의 - 백 - 성
 거기에서 너희 내 가 한 일을 보고서도
 조상들은 나를 시 험 하 였 고 나를 떠 보 았 - 다."